

새터청소년의 학교교육 적응을 위한
과학과 교수·학습 모형 개발

Development of Science Teaching & Learning Model for
School Education Adapta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박명숙*·안희수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새터청소년들은 오랜 학습공백기와 남북한 교육체제와 교과과정의 차이로 인해 남한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주최하는 '한겨레계절학교'에서 새터청소년들을 가르친 경험을 토대로 새터청소년의 학교교육 적응을 위한 과학과 교수·학습 모형(P&A 모형, Peace and Accordance Model)을 개발하였다.

남북한이 교육을 통해 평화롭게(peace) 하나(accordance)되기를 바라는 열망을 담은 P&A 모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 첫째, 새터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알맞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공교육기관인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그 기초이다. 공교육기관인 초·중·고등학교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터청소년 개인의 노력과 적절한 교육과정의 도움이 필요하다. 셋째, 새터민이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방법을 통해 통일 이후 남북한이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유추할 수 있다.

P&A 모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습경험의 다양한 수준차이를 고려하였다. 둘째, 새터청소년들의 인지적 능력 향상과 정서적 발달 위해 읽고 쓰는 활동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였다. 셋째,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모둠별 학습활동을 통해 깨닫게 하였다. 넷째, P&A 모형의 가장 큰 특징으로 특별히 정형화된 틀을 가진 교수·학습 모형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수업이 모두 같으면서 다른 것처럼 수업의 역동성을 가장 잘 반영한 모

형이 바로 P&A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남한 전체 학생들에 비하면 극소수이긴 하지만 다양한 학습 배경과 선행 경험을 가진 새터청소년들의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응하는 P&A 모형은 새터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돕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통일이후 남북한이 하나 되기 위한 교육 모형에도 매우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